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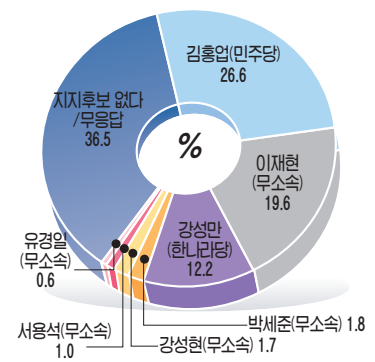
“여수를 기억해 주세요”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시단원 7명이 12일 오후 여수시 수정동 2012 세계박람회 홍보관 개관식에서 자신의 손바닥을 찍는 핸드프린팅을 한 뒤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여수=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4·25 국회의원 보선 D-12 광주일보·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

무안·신안 김홍업 26.6% 선두

이재현 19.6%...지지도 한나라, 우리당 제쳐

■무안·신안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후보가 출마한다면 그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5.8%에 달했다. 대전 서울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는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가 42.9%, 한나라당 이재현 후보가 39.9%를 각각 얻어 오차범위내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당 김윤기 후보는 2.3%에 머물렀다. 경기 화성에서는 한나라당 고희선 후보가 37.8%를 기록해 열린우리당 박봉현(16.4%), 민주노동당 장명구(12.1%)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홍업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 서울에서는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후보가, 경기 화성에서는 한나라당 고희선 후보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격전지로 꼽히는 무안·신안과 대전 서울의 경우 1~2위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4면)

대전 후보 선호도는 이명박 19.8%, 박근혜 9.0%, 정동영 5.8%, 손학규 3.6% 순이었으나 호남권을 대표하는

실사단 “여수 준비 완벽하다”



실행 단장 극찬...“숙박·교통 등 SOC확충 서둘러야”

▶관련기사 3·7면, 화보 14면

여수시, 전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열정이 담긴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의 첫번째 시험대인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여수 현지 실사가 12일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현지 실사를 통해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실사단에게 충분히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틀간의 여수 현지 실사를 마친 까르맹 실뱅(BIE집행위원장) 실사단장은 이날 오후 여수시 수정동 세계박람회 홍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정부, 여수시민들의 유치를 위한 자신감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행 단장은 실사 총평을 통해 “한국 정부와 유치위, 여수의 준비는 완벽했고 신뢰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극찬했다. 그는 또 “지역의 열의는 의심할 바 없었으며 박람회 개최 부지도 매력적인 데다 설계도 잘 됐다”며 “특히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 실행 단장은 “실사는 ‘만족스런 수준’이었다. 여수에서 얻은 경험과 느낌을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전달할 것이며 실사단원 모두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박람회가 열리면 80~200개국 이 참가하고 200만~4천만달러까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성공 개최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있어야 하므로 양질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한다”며 “여수는 매우 강력한 양질의 품질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행 단장은 “여수가 2010년에도 유치 활동을 잘했고 결코 실패는 아니었다”면서 “2012년 박람회는 2010

년 때보다 작은 규모인 인접 박람회기 때문에 여수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유치 경쟁 경험이 박람회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수에 산업단지가 많아 바다라는 주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여수가 선택한 주제는 환경 문제를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단체도 인정할 사항이며 산업단지조로 인해 박람회 유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양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사단은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숙박과 교통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해 정부의 대대적인 SOC 보완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실행 단장은 “숙박과 교통시설의 경우 필수 수준까지는 아직 안됐지만 구체적 개발 계획을 갖고

■BIE실사단 오늘의 일정

- ▲13일 오전 8시30분 프레젠테이션(서울 하얏트호텔) ▲낮 12시 창덕궁 탐방 및 오찬(창덕궁) ▲오후 2시30분 외교통상부장관 예방(세종로 정부 청사)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하얏트호텔) ▲오후 7시 중앙유치위원장 환송 만찬

있고 박람회 전까지 완공되리라 생각한다”며 여수박람회 유치 관건은 SOC 확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BIE 실사단은 이날 오후 여수에서 현지 실사를 마친 뒤 상경했으며, 13일 서울에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문화유적 탐방 및 문화재청장 주최 오찬, 외교통상부장관 면담, 기자회견을 끝으로 여수에 대한 실사 일정을 마치게 된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지사·뭇시장 “열기 보여준 시민들께 감사”

박준영 전남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은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여수 현지실사가 끝난 12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민은 물론, 전남·경남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밝

혔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지역민 모두가 여수박람회 유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

다. 이틀간의 여수 현지실사를 진두 지휘한 오현섭 여수시장은 “박람회 유치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친 여수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앞으로 여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유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전화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전화 1588-5051 ▶T.(061)360-5000



전남농산물은 정직합니다.

청정지역 맑은물에서 자란 우리농산물!!

순한한우 (전남한우 광역브랜드)
 • 100% 순수한 우리 한우라는 뜻이며, 전남 동부권 8개 축협이 참여해서 만든 브랜드 (참여축협: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보성, 순천, 여수, 장흥)

순한韓牛

풍광수토 골드 (전남쌀 연합브랜드)
 風 신선한 바다바람
 光 남녘의 따뜻한 햇볕
 水 맑고 깨끗한 물
 土 오염되지 않은 기름진 땅

햇뚝 (전남과채류 대표 브랜드)
 • ‘햇뚝’의 ‘햇’은 해를 상징하는 말로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을 의미하고 ‘뚝’은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자연의 뜻에 순응하는 소박하고 정겨운 전남농심’을 상징

해두루 (전남돼지 광역브랜드)
 • ‘해두루’란 명칭은 햇볕과 자연의 기운이 두루두루 스며든 순수하고 청정한 전남의 먹거리를 상징하는 뜻에서 ‘해’와 ‘두루’를 합해 만든 브랜드

해두루

